

5월 단체 “항쟁유적 복원”... 대안 없는 문화전당 속얇이만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공사 중단 배경과 해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개관 지연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항쟁 유적이 이 공간의 총탄흔적과 광주민중항쟁 지도부의 상형실 등을 복원해야 한다는 5월 단체의 주장과,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문화전당측의 줄다리기가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1년 짝 진행되고 있다. 문화전당측은 5월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전면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속내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5월 단체, “유적 복원해야”=5·18 기념재단 등은 지난해 3월경부터 옛 전남도청 건물에 남아있던 광주 민중항쟁 당시 시민군의 자취를 원형 보존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이 공간은 상무관, 옛 경찰청 본관 등과 더불어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6개 건물 가운데 하나다.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최근까지 40여일 동안 옛 전남도청 앞에서 원형 복원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5월 단체들이 지목한 ‘흔적’은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군이 상형실(방승실)로 사용했던 옛 전남도청 본관 1층 사무실(서무과)과 건물 곳곳에 새겨진 총탄 자국이다. 이들에 따르면 옛 도청 건물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 27일 계엄군의 도청 진입작전 과정에서 생긴 총탄 흔적을 곳곳에 품고 있다.

5월 단체들은 “총탄 흔적의 경우 항쟁 이후 페인트 덧칠된 만큼 이를 벗겨내고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형실의 경우 관곽편 의를 돕는다는 구

리모델링 마무리 단계서

전면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

양측 입장 첨예한 대립

市·정치권 등 나서 풀어야

실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일부 공간을 전시장으로 바꿨다.

5월 단체들은 “거둬들인 복원 요구에도 문화부가 공사를 강행, 옛 도청 본관 건물에서 5·18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화전당, “복원 현실적으로 어려워”=문화전당측은 5월 단체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총탄흔적을 찾기 위해 나섰지만, 최근 문화전당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사연구원이 총탄흔적을 조사하기도 했다. 울조에는 복원문제가 해결 될때까지 민주평화교류원 리모델링 공사와 전시 콘텐츠 구축을 중단해달라는 5월 단체의 주문을 수용, 일부 공정을 중단했다. 민주평화교류원 개관 문제로 5월 단체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문화전당과 광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광주항쟁 유적 복원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공간이 리모델링과 콘텐츠 구축 과정에서 용도 변경됐기 때문이다. 5월 단체들이

보존을 주장하는 상형실의 일부공간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이를 뜯어내고 원상으로 복원하면 민주평화교류원 개관시기가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데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문화전당의 한 관계자는 “옛 전남도청을 원형복원하는 것은 리모델링 보다 어렵다. 복원을 위해 또 다시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기에도 무리가 따를 것 같다”며 “5월 단체들과 협의해 다각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 지혜 모아야=전문가들은 “민주평화교류원 문제를 5월 단체와 문화전당측에 맡겨두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한 탓에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 사태 장기화가 예견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문화전당이 지난해 11월 개관했음에도 민주평화교류원이 문을 열지 못해 사실상 부분 개관상태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정치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10년 옛 전남도청 별관문제를 광주지역 각 분야 대표자로 구성된 원탁회의와 시민사회단체, 10인 대책위 등 각계 각층이 나서 풀었던 것이 하나의 사례다.

문화계의 한 인사는 “5월 단체와 광주시,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나서서 문화전당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광주의 미래를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왼쪽)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당선 후 처음으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대화하다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도와 달라” “1당이 양보”... 우상호·박지원 상견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9일 상견례를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야당 대표는 한술밥을 먹었던 옛 관계를 떠올리며 협력을 다짐하면서도 향후 원 구성 협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듯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국민의당에 협조를 당부했고, 박 원내대표는 제1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꽃 피는 데 두 야당이 큰 역할을 했다는 애

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자 박 원내대표는 “제1당에서 베풀어야지 작은 당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우 원내대표는 “박지원 대표님은 제가 존경하고 보셨던 관계니까 신뢰 하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고 더민주에서도 성과를 내고 국민의당도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같은 당에 있을 때 제가 ‘차기 지도자는 우상호’라고 몇번 이야기했다”면서 “평정히 합리적이고 시원

시원한 인격을 가진 분이니까 제1당 원내대표로서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리라 본다”고 화답했다.

면담은 더민주 박원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부분 없이 10분간 진행됐다. 박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와 함께 간담회실에서 나가면서도 “더민주도 좀 우리한테 내놔야 한다”고 재차 양보를 강조했고, 우 원내대표는 “양보할 것은 시원시원하게 하겠다. 격정 마세요”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옥시사태 최우선”... 20대 국회 협치 첫 과제 부상

여야 3당 한목소리 지목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9일 옥시의 가슴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20대 국회의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정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적 공분 대상인 이번 사건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발 빠르게 대응,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협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은 총선 민심을 받아들여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가슴기 살균제 문제를 박근혜정부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남 취입 후 첫 당정협의를 이 문제와 관련, “국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면서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고, 정부·여당은 비정당한 각오로 사태 수습에 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집권여당이 이 사안의 주도권을 가져야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슴기 살균제 문제는 19대 국회에서 더민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호소했지만 새누리당이 외면한 사안”이라며 “(새누리당이) 뒤늦게 청문회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왜 19대 국회에서 그렇게 방지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달 중에 국회 차원의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19대 국회가 마

무리되던 자연스럽게 해산돼 20대 국회 차원에서 다시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은 다음달 (20대 국회) 원구성 이후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가슴기 살균제 문제와 어버이연합 지원 논란, 정은호 로비 사건 등을 이달말 일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3대 현안으로 지목하고 조속한 대책 논의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가슴기 살균제 문제는 3년간 방치한 사건”이라며 “새누리당에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상돈 최고위원 선임... 국민의당 당직 인선 완료

원내 대변인 이용호·장정숙... 부대표 기획 최경환·법률 이용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원내 대변인 겸 홍보 부대표에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장정숙(비례대표) 당선인을 임명하는 등 원내 지도부 인선을 단행했다.

원내 대변인 외에 기획 부대표에는 최경환(광주 북울) 당선인, 당무 부대표에는 이태규(비례대표) 당선인, 법률 부대표에는 이용주(전남 여수갑) 당선인, 정책 부대표에는 김광수(전북 전주갑) 당선인, 여성 부대표에는 신용현(비례대표) 당선인이 각각 임명됐다. 정책위원회 산하에는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뒀으며 제1조정위원장

(범사·안행)은 권은희(광주 광산을) 정책 위 수석부장이 겸임하고, 제2조정위원장(외통·국방)은 김중로(비례대표) 당선인, 제3조정위원장(기재·정무·예결)은 채이배(비례대표) 당선인이 맡는다.

제4조정위원장(산사·국도·농해수)은 윤영일(전남 해남원도) 당선인, 제5조정위원장(복지·환노·여가)은 김삼화(비례대표) 당선인, 제6조정위원장(교문·미방)은 오세정(비례대표) 당선인이 각각 맡게 됐다. 이용호 원내 대변인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서 공보 업무의 전문성, 최경환 기

획 부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으로서 기획 업무 관련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태규 당무 부대표는 전략홍보본부장으로서 당직 경험을 토대로 당과 원내의 사고 역할을 맡게 됐고, 이용주 당선인은 검사 출신으로서 원내 법률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정조위원장들은 비례대표가 대거 포진하면서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측의 원내 영향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는 또한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김성식 최고위원 후임으로 이상돈(비례대표) 당선인을 임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이달의 추천 여행 도시! 체코 - 프라하

① 커플당 20만 마일리지 제공

전통 맥주 스파 무료 포함

클래식 프라하/체스키크롬로프 7일

EEW301_OKM 2,180,2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없음/선택경비 있음

- ☏ 호텔 : 부피르 호텔 (시내 4성급)
- 🕒 요일 : 매주 일/월
- ✈️ 항공 : 체코 항공(OK항공)
- 🎁 특전 : 미팅/샌딩 서비스
- 🍷 특식 : 로브코비츠 궁 코스 요리

② SM면세점 카드 3만원 권(커플당 1장)

전통 맥주 스파 + 고성호텔 숙박

클래식 프라하/비엔나 8일

EEW302_AYM 2,521,2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없음/선택경비 있음

- ☏ 호텔 : 부피르 호텔 (시내 4성급)
- 🕒 요일 : 매주 일/월
- ✈️ 항공 : 핀에어(AV항공)
- 🎁 특전 : 미팅/샌딩 서비스
- 🍷 특식 : 로브코비츠 궁 코스 요리

■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유료, 관광진흥기금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려! 부당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유 증가는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현지에서 고가의 선에 대해 자유로이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표 뒷쪽까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주의한 시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원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HNT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성급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 여행 유의 ● 여행 자재 ● 필수 권고 ●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